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19일)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8월 21일 사퇴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설정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산중으로 돌아갔다.
사진= 박재완 기자

불신임 멍에 안고 설정 스님 '산중으로'

총무원장 사퇴한 설정 스님, 원로회의는 불신임 인준

8월 21일 총무원청사 떠나며
원장직 내려놓은 설정 스님
명확한 '사퇴 언급' 없어 혼란

원로회의 '법적다툼 예방' 목적
불신임 결의안 만장일치 인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소임을 내려놓고 떠났다. 스님은 8월 21일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이라는 최악의 불명예를 피하려 했으나, 다음날 원로회의는 '법적 다툼 예방'을 목적으로 불신임을 인준했다. 이로써 설정 스님은 자진사퇴를 통해 해임은 면했지만 최종적으로 불신임이 인준된 첫 총무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원로회의 전날 긴급 기자회견

설정 스님은 원로회의 소집을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님은 이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 마련된 단상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 당선 후 올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체 화합을 이루겠다"고 밝힌 그 자리다. 기자회견장 양 옆은 총무원 부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 등 덕숭총림 스님들이 가득 메웠다.

설정 스님은 사퇴의사를 표명하기 전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앞으로 후학들이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불교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여론의 뭇매로 인해 물러나지만 종단이 변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설정 스님은 "오늘날 종단은 국가체제를 모방한 선거제도로 인해 위계질서와 장로정신이 무너지고 화합이 깨졌다. 삼보정재가 탕진되는 악순환이 종단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다"고 현재 조계종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설정 스님은 "서울시내 밤거리를 밝힌 십자가들을 보면서 우리 종단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생각해봤다. 그래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부대중이 한국불교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견을 종합해 들으려 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언론을 통해 자기 식구 헐뜯기에 전념했다. 여론몰이를 당할 때 염려해준 사람이 많았지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당사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융살림'의 가치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현 종단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언한 설정 스님은 자신이 총무원장직을 내려놓고 수덕사로 돌아간다는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94년 개혁회의 법제위원장으로서, 종법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종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특권층을 위한 종단이 아니라 온 종도가 부처님 품안에서 자유롭게 정진하고 봉사하는 종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 20분간 법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마친 설정 스님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집행부 스님들과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했다. 설정 스님은 대웅전과 극락전에서 부처님전에 3배의 예를 올렸으며, 총무원청사 앞으로 이동해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종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몇몇 종무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설정 스님은 악수를 마친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타 덕숭총림 대중과 함께 수덕사로 돌아갔다.

"사직은 인정, 불신임 불가피"

설정 스님이 자진사퇴하면서 다음날 소집된 원로회의서는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원로회의는 이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23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원로회의 사무처장 남전 스님은 브리핑을 통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직은 인정되나 사직에 대한 법적 다툼을 종식시키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무처의 이 같은 발표는 설정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원로회의의 명확한 법적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설정 스님 사퇴가 확정되면서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체제에 돌입,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A2면〉

선종 불교성지 진전사 둘레길 조성

양양군 탐방길 조성 착수… 양분된 사역 연결

선종불교의 성지인 진전사지에 새롭게 둘레길이 조성된다.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한국 선종불교의 성지로 알려진 진전사 탐방길 조성공사를 추진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양양군은 전통사찰 진전사 인근에 위치한 도의선사탑에서 국보 제122호 삼층석탑이 있는 진전사지(陳田寺地) 구간 친환경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지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8월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탐방로가 조성되면 현재 사찰이 위치해있는 도의선사탑 부지와 진전사지삼층석탑 주변 사역으로 양분된 진전사 일원이 하나로 연결된다.

또한 양양군은 탐방로 조성에 있어 과도한 절토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상단부에 위치한 도의선사탑에서 삼층석탑으로 내려가면서 주변 산지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탐방로는 길이 531m, 폭 1~1.5m 내외의 오솔길로 일부는 야자매트를 깔고, 지형에 따라 급경사 지역은 목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소규모 계곡구간에는 징검다리 형식의 돌다리를 설치한다.

진전사는 한국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창건했으며,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출가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진전사가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진전(陳田)'이란 글씨가 새겨진 기와조각과 연꽃무늬 수막새기와, 당초무늬 암막새기와, 물고기무늬 기와 조각들



강원 양양 진전사지 전경.

이 차례로 출토되면서 이 일대가 진전사 절터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제439호 도의선사탑이 남아 있으며, 지난해에는 진전사 사역 확인을 위한 발굴 및 시굴조사에서 국보급 가치가 있는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았다.

이성섭 양양군 문화관광과장은 "통일신사시대에 창건돼 스님들의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던 선림원지와 함께 진전사지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상징적인 유적"이라며 "유서 깊은 불교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진전사에서 출발해 설악저수지를 끼고 시원한 계곡 물줄기(둔정계곡)를 따라 설악산의 수려한 숲길을 감상할 수 있는 4km 구간 순환 트레킹 코스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둔전계곡 탐방로 조성이 마무리되면 진전사 둘레길과 연계한 산책코스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폭염 끝' 안거 해제, 만행 나선 운수납자

조계종 97개 선원서 2000여 수좌들 용맹정진

불기2562년(2018년) 무술년 하안거가 이례적인 폭염을 이겨내고 해제했다. 8월 25일 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서 3개월간 용맹정진한 운수납자들은 만행을 떠났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 대중현황을 정리한 〈무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에는 전국 97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6 · 비구니선원33곳)서 총 2,000명(총림280 · 비구1069 · 비구니651)의 대중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해제를 맞아 "금년의 무더위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진일여 하여야만, 본인의 살림살이가 드러나고 공부의 진취가 나타난다"면서 "분발심을 갖고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이어 "해제일 되었다고 화두를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돌아다녀서는 아니 되며, 산천에 마음을 빼앗겨 화두를 결망에 넣어두고 유랑을 다녀서도 아니 된다"면서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A5면〉

윤호섭 기자

37년 전통의 전국 최초 · 최고의 명품교육 실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하반기 6개월 과정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이래 37년동안
1만5천여명의 졸업생과 1,200여명의 포교사 및 100여명의 승려를
배출한 명실공히 국내 최초,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승가 및
유명대학의 저명한 법사님을 초빙하여 명품교육을 실현하며
정법구현과 불법홍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정사 주지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합동입학식 : 9월 6일(목) 오후 7시

기초교리학과 — 기초 핵심교리 중심으로 알기쉽고 체계적인 강의
야간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주간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

불교문화포교사자격증 — 민간자격 등록 제 2018-000374 호
사찰문화재 중심으로 현장답사 및 시청각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유식론 — 전 동국대 이 만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7시~9시

풍류대금반 — 김동수 / 문체부장관상 수상
맑고 깊은 소리를 통한 마음 치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판소리반 — 임인환 / KBS, MBC 출연
전통소리의 향기를 찾는 여행
매주 금요일 오후7시~9시

힐링연극반 — 임인환 / KBS, MBC 출연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서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Tel. 051-711-0700